

# 허난설현 「유선사」에 나타난 불우의식 연구

— 시어통계와 분석을 기반으로 —

손영화(전북대)\*

##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정감어의 분석적 고찰-허강적 이미지를 |
| 2. 허난설현의 「유선사」에 나타난 불우의식 | 통한 정서의 내적 침잠-           |
|                          | 4. 맺는 말                 |

##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허난설현의 연작 한시 「遊仙詞」 87수<sup>1)</sup>에 사용된 시어의 빈도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허난설현의 불우의식이 어떤 시어를 중심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시어의 빈도 및 텍스트 내 위치 등을 계량화하여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시어와 지배적 이미지를 추출함으로써 허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5C-A00421].

1) 본고의 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 DB의 목판본 『蘭雪軒詩集』(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난설현시집』에 수록된 시는 3편의 산문에 포함된 시 3수를 포함해 모두 213수이다. 이 중 선계를 노래한 작품은 11제 99수로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유선사」 87수를 제외하고 선계를 모티프로 다룬 작품으로는 오언고시 「感遇」 중 제4수, 오언고시 「遣興」 중 제6수·제8수, 칠언고시 「望仙謠」, 칠언고시 「次仲氏見星庵韻」의 제2수, 칠언율시 「夢作」·「題沈孟鈞中溟風雨圖」·「皇帝有事天壇」, 「步虛詞」 중 제2수, 산문 「夢遊廣桑山詩序」와 「廣寒殿白玉樓上樑文」에 들어 있는 시가 있다.

난설헌 한시의 미학적 특질을 찾고자 한다.

허난설헌은 조선 최고의 천재 여류 시인이라는 수식어와 가부장적 유교 질서에 희생된 비운의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함께 따라다니는 인물이다. 당대 사대부 여성에게 굴레 지어진 性差로 인해 술한 오해와 멸시와 냉대 속에서 스물일곱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뛰어난 여류 시인으로 인정되면서도 허난설헌의 작품은 여느 남성 작품들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불우한 생애라는 傳記的 필터를 먼저 거침으로써, 작품 자체가 지닌 형식적·구조적 특성을 매몰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허난설헌의 불우한 생애를 기반으로 한시의 미학적 특질을 선형적으로 규정짓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필이면 조선 땅에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 등 세 가지를 한탄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三恨’의 일화는 허난설헌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지만, 해석의 다양성과 천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자의이건 타의이건을 떠나 허난설헌이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또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삶에 경도되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시대가 요구하는 규격화된 여성의 역할보다는 주체적인 자의식을 토대로 창의적인 시인 정신을 추구했다. 시대를 앞서거나 시대의 주류에 반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시대와 불화하게 마련이다. 더욱이 허난설헌은 세상뿐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채 고독과 단절의 삶을 영위하다가 단명했다. 짧은 생애 속에서 허난설헌이 채 피우지 못한 꽃은 이른바 유선문학의 압권으로 일컬어지는 연작 한시 『遊仙詞』로 형상화되었다. 허난설헌의 자서전이라고도 이르는 『유선사』 87수는 불우한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선계를 지향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허난설헌의 유선사는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의 굴레를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 선계를 꿈꾸고 형상화한 텍스트에 그치지 않는다. 허난설헌의 선계는 현실의 탈출구로서 자유로운 욕망의 날개짓을 펼치는 공간만도 아니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망각하기 위한 피안처만도 아니다. 허난설헌 유선사에는 여성에게 가해진 유교적 모랄의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과 그 안에서 내적·외적 갈등을 겪으면서 허난설헌이 표현하고 싶었던 욕망과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진남북조 시대 문예비평가인 鍾嶸은 그의 비평서인 『詩品』에서 郭璞의 유선시에 대해 그 표현에 강개함이 많아 불우의 회포를 읊은 것이지 신선들의 지취는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말은 유선시에서 문면에 드러나 있는 다양한 유선 행위 이상으로 詠懷의 의미가 중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2)</sup> 이런 맥락에서 허난설헌의 『유선사』 87수 역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유선의 모습이나 행위 이상으로 그 안에 내포된 정서와 의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시공을 초월한 환상적인 遊仙의 행태는 궁극적으로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용납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懷才不遇’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재시인 허난설헌과 당대 가부장적 유교 질서와의 불화가 『유선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말해 허난설헌의 불우의식이 텍스트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승화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유선사』의 시어 빈도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허난설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3)</sup>

## 2. 허난설헌의 「유선사」에 나타난 불우의식

‘不遇’란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만남의 대상이 ‘무엇’ 혹은 ‘누구’인가에 따라 의식의 발현태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회학적 갈등의 차원을 고려해 볼 때 허난설헌의 불우의 대상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상실된 존재에 해당한다. 예컨대 시부모, 남편, 친가, 자녀가 불우의 대상 ‘누구’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종속과 순종이라는 굴레를 씌운 당대 현실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다. 허

2)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121면.

3) 본 연구는 시어의 빈도 추출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량언어학의 통계학적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에 따른 이점에 관해 울만(Ullmann)은 “특정한 장치에 대체적인 빈도나 그 밀도를 표시해 놓음으로써 작품 해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통계적 수치의 의해 문체적 요소의 이상 분포를 뚜렷이 제시해 줌으로써 미학적 해석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신희삼, 『시어의 언어적 분석의 효용성에 관하여』, 『한국어의미학』 제32집, 한국어의미학회, 2010, 98-99면에서 재인용).

난설현의 삶은 혼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불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부모와 남편의 냉대와 모멸을 견뎌야 했고, 유일한 의지처인 친가는 몰락했으며, 그나마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었던 자녀들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현실의 피안처로 허난설현은 선계를 꿈꾸었다. 「유선사」 87수는 허난설현이 재현한 유토피아이자 不遇之感의 문학적 표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사」에 나타난 허난설현의 불우의식의 본질에 한걸음 더 근접하고자 통계적 방법으로 시어의 빈도수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정서적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빈도 추출을 위해 작품의 정서적 맥락에서 정감 기여도를 기준으로 情感語를 선정했다.<sup>4)</sup> 정감어는 작품의 정서적 흐름과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어이다. 따라서 「유선사」 전체에서 추출된 정감어의 빈도는 허난설현이 「유선사」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서정의 실상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유선사」 전체에서 정감어의 출현 분포를 보면,<sup>5)</sup> 일단 ‘露, 歸, 空, 濕, 別, 寒, 落, 罷’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작품의 배경이나 특정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시적 자아의 정서를 환기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孤, 恨, 淚, 怨, 情’ 등은 오히려 빈도가 낮다. 정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가 많은 것은 仙界를 배경으로 한 遊仙 행위의 형상화가 고도의 상징과 비유라는 문학적 수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선사」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허난설현의 시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위에 나타난 시어 통계는 서정을 특징으로 하되 정감에 매몰되거나 虛誕함에 빠지지 않으면서 고고한 자존감을 지키

4) 장정룡은 허난설현의 비통한 삶과 고뇌에 찬 마음이 시로 승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정서적 어휘를 ‘슬픔공감어’라고 칭하였다(『허난설현평전』, 새문사, 2007, 162-163면). 슬픔인 허난설현의 작품에 주된 정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칫 허난설현의 시세계를 ‘슬픔’이라는 정서만으로 단순화하고, 그 외의 미적 특질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정서에 지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시상 전개에 있어서 정감 표출의 측면이 뚜렷한 시어를 ‘情感語’로 명명하고, 서경이나 단순 묘사 등에 사용된 시어와 구별하고자 했다.

5) ‘沈沈, 迢迢, 寥寥’처럼 동일 한자가 반복되어 한 단어를 형성하는 첩어의 경우에는 1회 출현으로 처리했으며, 정감어가 고유명사 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1회 등장하는 정감어로는 ‘愁, 返, 迢, 塞, 蔽, 寥, 悄, 侵, 暮, 廻’ 등이 있다.

려는 허난설헌의 품격을 계량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sup>6)</sup> 허난설헌의 한시가 섬세한 여성적 감수성과 표현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浮華함이나 纖弱함으로 흐르지 않고 절제된 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은 사대부가 여성이라는 신분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sup>7)</sup>

「유선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한 여성으로서, 불우로 점철된 삶과 ‘거리두기’를 위한 문학적 표현이다. 그러나 연이은 불행은 허난설헌의 고고한 仙趣를 잠식하여 문학적 수사로 풍성했던 유선의 꿈이 현실 안에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허난설헌에게 선계는 유선이라는 낭만적 상상을 통해 현실의 결핍을 충족할 수 있었던 문학적 형상화의 공간이었으나, 점차 현실의 불우지감을 표출하는 내적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선계를 매개로 한 욕망과 현실의 대결이 현실의 우위로 드러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유선사」에 나타난 선적 취향과 정서의 내적 침잠을 兩端으로 하고, 선계와 현실계의 경계에서 촉발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다루었다. 먼저 선적 취향이 강한 작품의 경우, 선계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이자 신선들로 가득한 흥취의 세계이다. 선계가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

정감어	빈도수	정감어	빈도수	정감어	빈도수	정감어	빈도수
閑	19	罷	6	遙	3	獨	2
露	19	鎖	6	沈	3	絶	2
歸	17	盡	6	浸	3	淚	2
下	13	斜	6	疏	3	啼	2
空	12	閉	5	虛	3	隔	2
不	12	深	4	折	3	怨	2
濕	11	孤	4	散	3	情	2
別	10	暫	4	曉	3	降	2
去	10	霜	4	冷	2	低	2
無	10	染	4	破	2	消	2
寒	9	塵	4	稀	2		
落	9	晚	3	恨	2		
西	9	水	3	偷	2		

6) 주지번은 1606년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가 허균이 보여준 허난설헌의 시를 읽고 “티끌 밖에 나부끼고 나부껴 빼어나면서도 화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때때가 뚜렷하다.”라고 극찬하였다(장정룡, 『허난설헌 평전』, 새문사, 2007, 19-20면).

7) 여성이라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분적 차이에 기인해,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정감의 流露를 주제로 하는 副室 또는 妓女 문학과 사대부 여성의 규범적 문학이 구별된다.

하는 순간 불안감이 촉발되고 정서가 내면화하면서 선계는 더 이상 현실의 초월 공간이 아닌 현실의 불우의식을 표출하는 문학적 공간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을 각각 집단적 유선을 통한 낭만적 꿈꾸기, 선계와 현실의 경계에서 노정된 불안감, 현실의 우위로 좌절된 선계의 꿈으로 설정하고, 정감어의 빈도 추출 결과와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집단적 遊仙을 통한 낭만적 꿈꾸기

정신적 세계관과 일상적 삶을 단순화했을 때 허난설헌의 시세계는 ‘仙’과 ‘恨’으로 대별된다. 허균은 『학산초담』에서 「유선사」에 대해 ‘시어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숨씨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난설헌은 작품에서 구사하고 있는 수많은 시어들은 선계 지향의식을 반영한다. 시의 형상화 방식으로서 허난설헌이 채택한 仙詩語의 빈도는 허난설헌이 지닌 선계 지향의식의 강도와 비례한다. 이런 측면에서 허난설헌의 「유선사」는 보다 차원 높은 선시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허난설헌에게 遊仙은 현실과의 불화에서 촉발된 순간적인 반항이나 일시적 도피의 의미가 아니다. 8세에 「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지어 신동으로 이름이 났을 때 이미 선계를 설정해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려는 기미가 드러났다.

보배로운 일산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 구름수레는 색의 경계를 벗어났고, 은빛 누각이 해에 비치니 노을 기둥은 티끌세상이라는 단지 속을 벗어났다. 한 신선의 나팔이 기틀을 움직여서 구슬기와 궁전을 환상적으로 지었고, 푸른 조개가 입김으로 불어서 구슬나무 궁전을 이루었다.

청성장인의 옥 휘장 만드는 기술을 다하고 벽해왕자의 금 껌의 묘방을 다 배웠으니, 이는 하늘이 지은 것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주인의 이름은 신선의 명부에 올랐고, 벼슬은 신선의 반열에 있다. 태청궁에서 용을 타고 아침에 봉래산을 출발해 저물녘에 방장산에서 자며 학을 타고 삼신산을 향할 적에 왼편에는 신선 부구를 당기고, 오른편에는 신선 흥애를 거느렸다. 천년 동안 현포에서 머물러 살다가 황정경을 잘못 읽어 한 번 꿈에 인간의

티끌세상에 내려왔다. 무양궁으로 귀양을 내려오고 적승노파가 인연을 맺어주  
어 다함이 있는 집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sup>8)</sup>

자신을 황정경을 잘못 읽어 귀양 온 신선으로 간주하는 謫仙意識이 나타나  
있다. 선계는 초월과 영원의 시·공간성을 전제로 하여 화려하면서도 고결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데 반해 현실은 유한한 ‘티끌[塵]’ 세상으로 비유된다. 화  
려한 선계 묘사는 인간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작자 개인의 단순  
한 창작이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활발히 창작된 유선시의 전통을 따른 것으  
로, 유선시가 도교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신선 전설에 대한 폭넓은 섭렵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sup>9)</sup> 허난설헌 역시 어릴 적부터 『태평  
광기』를 즐겨 읽어 긴 이야기를 다 외울 정도였다고 전하는데, 선계 취향의  
한시들은 이러한 문학적 기반에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허난설헌에게 선계는 일상에서 해방되는 공간이자 현실의 결핍이 충족되  
는 공간이다. 특히 낭만적 상상력을 발휘해 현실의 갈등상황과 한계를 배제함  
으로써 정서적으로 느긋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여유로움이 시어 ‘閑’으  
로 표상된다.

閑解青囊讀素書	한가히 청낭 풀고 신선의 경전 읽는데
露風煙月桂花疏	안개 속 달빛에 계수나무 꽃은 드문드문
西妃小女春無事	서왕모의 소녀가 봄이라 할 일이 없어
笑請飛瓊唱步虛	웃으며 비경에게 보허사를 부르라 청하네 (#8) <sup>10)</sup>

閑携姊妹禮玄都	한가히 자매를 데리고 현도에 예를 올리니
三洞真人各見呼	옥동의 신선들이 저마다 대답하네
教著赤龍花丁立	적룡을 꽃나무 아래에 세워 놓고

8) 寶蓋懸空，雲耕超色相之界，銀樓耀日，霞檻出迷塵之壺。雖復仙螺運機，幻作壁瓦之殿，翠蜃吹霧，嘯成玉樹之宮。青城丈人，玉帳之術斯殫，碧海王子，金櫛之方畢施。自天作之，非人力也。主人名編瑤籍，職綴瓊班。乘龍太清，朝發蓬萊，暮宿方丈，駕鶴三島，左挹浮丘，右拍洪厓。千年玄圃之棲遲，一夢人間之塵土。黃庭誤讀，謫下無央之宮，赤繩結緣，悔入有窮之室。(『蘭雪軒詩集』附錄「廣寒殿白玉樓上樑文」 일부)

9)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30면.

10) 작품번호는 「유선사」 수록 순서에 따라 #1부터 #87의 번호를 부여했다.

작품의 첫 글자인 ‘閑’은 작품 전체의 시상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정감이  
다. 시·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선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安逸을 구가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유선사」 제8수에서는 한가롭게 앉아 신선의 책을 읽는데, 서왕모가  
童女를 보내 飛瓊에게 ‘步虛詞’를 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적 배경은  
어느 봄날 밤이다. 안개 사이로 새어나오는 달빛과 달빛을 머금은 계수나무  
꽃은 나른한 봄날 밤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계수나무는 현실에서 입추  
가 지난 가을에 피는 꽃이지만 선계의 계수나무는 선약을 훔쳐 달로 달아났  
다는 월궁선녀 항아의 전설 모티프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나무이다. 「유선사」  
에서 계수나무는 신선세계 봄의 정취를 고조하는 글감이 되는데,<sup>11)</sup> 이는 현  
실의 시간관념을 초월하는 상상력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꽃에 반영된 결과할  
수 있다.

결구에 나오는 보허사는 ‘허공을 거니는 노래’라는 뜻으로, 원래 궁중연례  
악의 하나이다. 『난설헌시집』에 「보허사」라는 제목의 칠언절구 2수가 실려  
있는데, 난새와 학을 타고 선계를 누비는 自得之所懷를 읊고 있다.<sup>12)</sup> 이로써  
미루건대 결구에 등장하는 선인 飛瓊은 허난설헌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오색난새, 청룡, 백룡, 학, 봉황, 기린, 고래, 흰 사슴, 푸른 사슴 등 상상  
속의 동물을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거나 선계의 거리를 누리는 낭만적인 유  
선 풍경은 「유선사」에서 자주 확인된다.<sup>13)</sup> 이러한 상상의 동물은 선계로의  
진입과 선계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는 매개수단이다. 상상 속 동물이

11) 「유선사」 87수에서 계수나무는 13번 등장한다. 모두 선계의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 특  
히 봄의 정취를 자아내는 배경소재로 쓰인다. 「望仙謠」에서도 “쌍쌍의 월궁 선녀 거문고 타  
고, 세 번 피는 계수나무 봄내음 향기롭구나[天風吹擊翠霓裳 玉環瓊佩聲丁當]”라고 노래하  
고 있다.

12) 乘鸞夜下蓬萊島 閑輾麟車踏瑤草 海風吹折碧桃花 玉盤滿摘安期棗 九霞裙幅六銖衣 鶴背沿  
風紫府歸 瑤海月明星漢落 玉簫聲裏霧雲飛 「步虛詞」.

13) 紫鸞煙蓋向扶桑(#13), 笑駕青龍上碧虛(#17), 盡日簾前卓鳳車(#18), 腳踏風龍徹骨寒(#27), 閑  
回鶴馭瑤壇上(#30), 乘鸞來下九重城(#33), 催龍促鳳上朝元(#35), 朝日駕龍千騎女(#46), 夜闌  
笙鶴降蓬萊(#49), 鳧伯閑乘白鹿遊(#53), 催喚彩鸞東去疾(#56), 自驂孤鳳出彤霞(#58), 身騎青  
鹿入蓬山(#64), 時控彩鸞過舊苑(#70), 乘鸞夜入紫薇城(#85) 등.



면서도 대부분 백색과 청색의 색채이미지를 사용해 선계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14수 역시 정감어 ‘閑’을 초두에 배치해 여유로운 선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황궁에서 열린 투호놀이 구경이 작품의 주된 창작모티프가 되면서 閑의 정서가 집단적 ‘興’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閑은 자칫 무료함으로 빠질 수 있는 개인적 정서인데, 허난설헌은 선계의 다른 인물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수법으로 閑의 이러한 부정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즉, 제8수에서는 서왕모의 초청을 통해, 제14수에서는 신선들의 투호놀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선계는 시적 화자 개인의 유선 공간에서 신선들의 집단적 유선 공간으로 확장되고, 정서의 흐름 역시 개인적 서정을 벗어나 집단적 흥취로 전이된다.

이러한 정서적 흐름과 시상 전개방식은 제18수에 잘 나타나 있다. 제18수는 전반부 1~2구와 후반부 3~4구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선계를 배경으로 한 시적 화자의 개인적 상황을, 후반부는 시적화자를 포함한 선녀들의 집단적 향유를 담고 있다.

閑住瑤池吸彩霞	한가로이 요지에 살며 노을 마시고
瑞風吹折碧桃花	상서로운 바람 불어 벽도화 꺾어 놓네
東皇長女時相訪	동황의 맏따님 때때로 서로 찾아
盡日簾前卓鳳車	온종일 발 앞에 봉황 수레를 세워 놓네 (#18)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선계의 풍경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한가로이[閑]’로 표현되는 개인적 안락은 바람에 2구의 ‘꺾인[折]’ 벽도화에서 위기를 맞는다. 자칫 정서의 내적 침잠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시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전제했을 때 이 작품의 의미지향은 선계를 꿈꾸었으나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 시적 화자의 불우의식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정감어의 빈도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우의식의 양상은 작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sup>14)</sup>

14) 허난설헌의 『유선사』 87는 현실의 결핍으로 인한 욕망의 불만 상태를 선계 지향으로 극복하고자 한 문학적 판타지이다. 그러나 불우한 생애가 증명하듯이 허난설헌의 시적 판타지가

천재시인 허난설헌은 새로운 인물의 개입을 통해 시상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제8수 ‘서왕모의 소녀[西妃小女]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동황의 만파님[東皇長女]’을 등장한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의 개인적 서정 공간에 그쳤을 선계가 다른 선녀들의 방문을 통해 집단적 유선 공간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靜的 정서 ‘閑’은 집단적·動的 정서 ‘興’으로 발전하는데, 흥취는 문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요약적 서술 및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결구의 온종일 주렴 밖에 세워놓은 봉황수레는 주렴 안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표현이다. 주렴 안은 정감을 나누고 놀이로 흥취를 돋우는 왁자지껄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접빈객에 술이 빠질 수 없다며 한바탕 술자리가 질펀하게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건 간에 1~2구에 묘사된 개인적 情操와는 판연히 다른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이처럼 허난설헌 「유선사」에 나타나는 선계는 개인적 공간이 아니라 집단적 층위의 공간이다. 그리고 이 층위는 仙人-신선, 선녀, 진인 등-이라는 동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緜嶺仙人碧玉箏	구령의 신선이 벽옥 쟁을 타면서
折花閑倚董雙成	한가로이 꽃을 꺾어 들고 동쌍성에 의지하네
瑤絃誤拂黃金柱	구슬 줄 자못 텅기어 황금기둥 스치니
遙隔彤霞聽笑聲	붉은 노을 저 너머에서 웃음소리 들리네 (#32)

제32수는 한가로이 꽃을 꺾어 들고 쟁을 타는 신선을 내용으로 한다. 혼자만의 시·공간을 향유하는 1~2구의 모습은 일견 도연명의 「飲酒」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번잡한 세상사를 피해 초야에 묻혀 사는 隱者의 초연한 심경을 비유한 도연명 시와 달리 이 시는 ‘웃음소리[笑聲]’

---

현실적 한계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관타지로 끝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허난설헌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후자의 결과주의에 치우쳐 「유선사」를 포함해 허난설헌 작품 전체를 결핍된 욕망과 좌절된 꿈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작품 해석의 일반화는 허난설헌의 문학의 다양한 스펙트럼 또는 조류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허난설헌 「유선사」에 나타난 두 경계 즉, 초월을 위한 낭만적 꿈꾸기와 현실적 좌절에 따른 不遇之感을 兩端으로 설정하고, 두 경계의 접점에 드러나는 특징을 살피고자 시도했다.

를 통해 집단적 유선을 상기한다. 구령선인의 연주가 애초에 다른 신선·선녀를 청중으로 전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연주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노을 너머 아득히 먼 곳에 들어오는 웃음소리는 실수를 비롯거나 책망하는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동류애에서 우러난 낭만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다음은 동류애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유선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東宮女伴罷朝回	동궁의 선녀들이 조회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花下相邀入洞來	꽃 아래서 서로 만나 동굴로 들어오네
閑倚玉峯吹鐵笛	한가로이 봉우리에 기대어 쇠 피리 부니
碧雲飛遶望天臺	푸른 구름 날아 망천대를 에워 두르네 (#39)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고 동류 선녀들과 함께하는 유선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인간세계에서 결핍의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감에 따라 충족된다. 봉우리에 기대어 한가로이 부는 피리, 망천대를 에두른 푸른 구름은 충족의 심리상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요컨대 허난설헌에게 유선 행위는 자신의 仙緣을 확인하는 謫仙意識의 발로<sup>15)</sup>이다. 허난설헌은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간 고독의 화신으로서, 현실의 대항마로 선계를 꿈꾸었다. 선계야말로 허난설헌의 정체성의 산실이며, 현실은 잠깐의 귀양처일 따름이다. 본연의 자리, 선계에서 허난설헌은 여유롭고 편안하다. 그리고 동류 선인들과 유선 행위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겁다. 제자리를 찾은 심리적 안정감은 주로 정감이 '閑'으로 표출되며, 화려한 이미지로 가득한 선계 혹은 선계 생활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2.2. 선계와 현실의 경계에서 노정된 불안감

「유선사」에서 허난설헌이 형상화한 선계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 이상적 공간이다. 그 이상적인 공간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선녀 허난설헌

15) 정민, 앞의 책, 183면.

은 내적 여유와 외적 흥취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낭만적 꿈꾸기는 覺夢과 동시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각몽 후가 아닌 꿈속에서 현실을 인지할 때 시적 화자의 심리는 어떠하며, 작품에서 어떤 시어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허난설현은 을유년(1585) 봄에 『夢遊廣桑山詩序』를 지었다.

을유년 봄 내 부모상을 당해 외가에 기거할 무렵, 하룻밤 꿈에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 오르니, 산이 온통 구슬과 옥이었다. 여러 봉우리가 모두 포개졌는데, 흰 구슬과 푸른 구슬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무지개 같은 구름이 그 위에 서려 오색이 선연하고 고왔다. 구슬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샘 몇 줄기가 벼랑과 바위 사이로 쏟아져 내려, 구슬이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두 여인이 있는데 이십 세 가량의 절대가인이었다. 하나는 붉은 노을 옷을 입었고, 하나는 푸른 무지개 옷을 입고 손에는 금빛 호로 술병을 들고 춤을 추었는데, 온갖 향기가 숲 끝에서 풍겨나 향기로웠다.

드디어 정상에 오르니 동남쪽 큰 바다가 하늘에 맞닿아서 온통 푸르고, 붉은 해가 처음 돌아 오르면 파도에 해가 목욕을 하는 듯했다. 봉우리 위에는 커다란 못이 맑고 깊었고 연꽃의 색은 푸르고 잎은 큰데, 서리를 맞아 절반은 시들었다.<sup>16)</sup>

꿈속에 광상산 정상에 올라 바라본 풍경을 내용으로 한다. 유선시의 선계 묘사 방식에 따라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계 풍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문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오언절구가 실려 있다.

碧海侵瑤海	푸른 바다가 구슬 바다를 침노하고
靑鸞倚彩鸞	파란 난새가 오색 난새에 기대네
芙蓉三九朵	아리따운 연꽃 스물일곱 송이
紅墮月霜寒	붉은 꽃 떨어지니 서릿달 싸늘하네

연꽃 스물일곱 송이가 떨어졌다는 3~4구의 내용을 정험이라도 하듯이 허난설현이 기축년(1589) 봄에 27세로 세상을 떠남에 따라 훗날 이 시는 ‘詩讖’

16) 『난설현시집』 부록, 『夢遊廣桑山詩序』 일부.

으로 불리게 된다. 서문에서 ‘서리를 맞아 절반은 시들었다’는 징험의 기미에 해당한다. 서문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광상산은 구슬과 옥으로 이루어져 눈부시게 빛날 뿐 아니라 오색 구름이 서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무한한 상상이 빚어낸 선계 이미지로 가득찬 곳이다.

그런데도 허난설헌이 광상산 정상에 있는 큰 못에 반나마 시든 연꽃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불안감에서 찾고자 한다. 선계를 향한 초월의식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현실의 냉기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이는 선계의 한복판에서 문득 상기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의 징후이다. 허난설헌은 완벽한 이상적 공간인 선계가 한낱 夢中事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꿈이 깨면 다시 차디찬 현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지의 느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一春閑伴玉眞遊	봄 내내 한가로이 옥진과 짝해 노는데
倏忽星霜已報秋	갑자기 세월 흘러 가을을 알리네
武帝不來花落盡	무제는 오질 않고 꽃만 다 지네
滿天煙露月當樓	달빛 다락에 비치는데 안개이슬만 가득하네 (#76)

氷屋珠扉鎖一春	옥 같은 집과 구슬 사립문 이 봄을 가두고
落花煙露濕綸巾	지는 꽃에 긴 안개와 이슬 비단 수건 적시네
東皇近日無巡幸	옥황상제계선 요사이 순행이 없으시사
閑殺瑤池五色鱗	요지의 오색 기린 한가하기 그지없네 (#7)

봄은 선계를 상징하는 계절이며, 선계의 봄은 영속적이다. 선계는 시·공간적 초월의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갑자기[倏忽] 세월이 흘러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꽃도 다 지고 고요한 안개 속에 잠겼다. ‘갑자기’ 찾아온 가을은 갑자기 인지하게 된 현실에 대한 우울이자 불안의 계절적 표상이요, 하늘을 뒤덮은 안개는 현실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유선사」 제76에는 선계와 현실의 경계에서 촉발된 불안감이 노정되어 있다.

제7수에는 집 안에 봄을 가둬 두려는 시적 화자의 의미 없는 시도가 나타난다. ‘봄을 가둔다[鎖一春]’는 표현은 황진이의 시조에서 동짓달 긴 밤의 허

리를 베어 춘풍이불 아래 넣어두고 싶다는 것과 동일한 발상이다. 흐르는 시간을 가두겠다는 이러한 발상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현실세계의 유한성이 전제되어 있다. 결국 허난설헌은 선계 지향의 謫仙의식과 현실의 불안감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하는 셈이다.

雲角青龍玉絡頭   머리에 옥 장식 띠를 두른 청룡  
紫皇騎出向丹丘   자황께서 타고 납시어 단구로 향하시네  
閑從壁戶窺人世   한가히 구슬 문 통해 인간세상 엿보니  
一點秋煙辨九州   한 점의 가을 연기 구주를 갈라놓네 (#21)

자황이 단구로 행차하자 시적 화자는 구슬 문을 통해 인간세상을 엿본다. 청룡, 자황, 단구, 벽호 등은 모두 선계의 이미지이다. 허난설헌은 선계에서조차 인간군상이 사는 현실세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계는 몽중 세계에 불과하며, 중국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현실이 奇花瑤草 만발한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가을 연기[秋煙]’ 감도는 불안한 곳일지라도 말이다.

현실을 향한 시적 화자의 은밀한 시선은 보다 구체적인 소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시에서는 선계의 옥 티끌이 인간세상에 떨어지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催呼滕六出天關   서둘러 등륙 불러 하늘문 나오는데/  
腳踏風龍徹骨寒   바람 탄 용을 밟으니 추위가 뼈에 스며  
袖裏玉塵三百斛   소매 속에는 삼백 섬 되는 옥 티끌  
散爲飛雪落人間   흩날리는 눈송이로 인간세상에 떨어지네 (#27)

삼백 섬이나 되는 선계의 옥 티끌이 눈송이가 되어 인간세상으로 흩날린다. 시선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눈송이를 통해 선계와 인간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처럼 「유선사」에는 선계와 현실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다. 허난설헌 스스로 적선임을 자부하고 본래의 선녀 자리로 돌아가 마음껏 선계를 향유했으나, 문득문득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는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선계에서의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구가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이때의 허난설헌은 선계도 인간계도 아닌 선계와 인간계의 접점에 위치한 불안한 존재이다.

### 2.3. 현실의 우위로 좌절된 선계의 꿈

유선 행위는 중세적 자아의 낭만적 꿈꾸기로서 무한한 상상력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대항하기 어려운 현실의 압제와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어 기제 구실도 한다. 그러나 결국 꿈은 깨기 마련이고, 자아는 결국 변할 것 없는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선 문학이 추구하는 세속 현실의 초월은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자아는 꿈을 통한 선계 유선의 과정에서 더욱 커진 세계와의 괴리 앞에 직면하게 된다. 탈출은 좌절의 새삼스런 확인일 뿐이어서 현실과의 불화나 첨예한 긴장 상태를 해결한 어떤 대안도 마련해주지 못한다.<sup>17)</sup>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우위 앞에 선계의 꿈이 반복적으로 좌절됨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상처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된다. 이런 점에서 夢中遊仙은 현실의 탈출구라기보다는 현실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다음은 신선세계를 노래한 『洞仙謠』이다.

紫簫聲裏彤雲散	자춧빛 통소 소리에 붉은 구름 흩어지니
簾外霜寒鸚鵡喚	주렴 밖엔 서릿발 차고 앵무새 서로 부른다
夜闌孤燭照羅帷	깊은 밤에 외로운 촛불 비단 휘장 비추니
時見疏星度河漢	때로 성긴 별이 은하수 건너는 것 바라보네
丁東銀漏響西風	또드락 물시계 소리 서풍에 메아리치고
露滴梧枝語夕蟲	이슬 맺힌 오동나무 가지 위 저녁벌레가 우네
蛟綃帕上三更淚	명주 수건 위에 밤새도록 우는 눈물
明日應留點點紅	내일엔 마땅히 점점이 붉은 자욱 남겠지

작품의 초입에 등장하는 자춧빛 통소는 시적 화자의 선계 지향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선계는 동류 신선·선녀와 더불어 여유를 즐기고 자유롭게

17) 정민, 앞의 책, 208면.

비상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집단적 유선으로 고조되는 仙的 흥취도 찾아볼 수 없다. 앵무새, 비단 휘장 같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계 묘사는 오히려 차디찬 현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릿발 차가운 늦가을의 쓸쓸한 정취를 배경으로, 짝을 부르는 앵무새의 울음소리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증폭시킨다. 때때로 은하수를 건너는 별, 오동나무 가지에서 우는 저녁 벌레에도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시에서 허난설헌은 외로움에 겨워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물로 명주수건을 적시는 현실계의 존재이다. 허난설헌 앞에는 남편도, 친구도, 자식도 없어 의의가지없는 현실이 놓여 있다. 극복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 선계를 향한 낭만적 꿈꾸기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를 잃었다.

榆葉飄零碧漢流	느티나무 성긴 잎 지고 푸른 은하수 흐르는데
玉蟾珠露不勝秋	달에 구슬 같은 이슬은 가을을 이겨내지 못하네
靈鵲橋散無消息	신령스런 까치 다리는 흩어지고 소식 없으니
隔水空看飲渚牛	물 건너에서 속절없이 물 마시는 견우만 바라보네 (#83)

『유선사』 제83수에서도 『몽선요』와 마찬가지로 견우직녀 모티프를 가져와 외로운 자신의 신세를 직녀에 비견해 토로하고 있다. 은하수 너머 견우는 직녀를 잊은 듯 소식이 없는데, 신령스런 오작교는 흩어져 이제 견우를 만날 기약조차 없다. 쓸쓸한 가을바람에 떨어져 나뉘는 느티나무 성긴 잎은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하는 계절적 경물이다.

선계에도 외로움이 있고, 임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존재했지만 한스러운 여인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다. 선계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록 중매를 서고, 재혼을 축복하고 잔치를 여는 낭만적 상상의 공간이었다.<sup>18)</sup> 조선 중기의 금기의 체계에서 이러한 자유분방한 결연의 욕망은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위험한 욕망이 선계에서는 기탄없이

18) 新詔東妃嫁述郎 紫鸞煙蓋向扶桑 花前一別三千歲 却恨仙家日月長 (#13)

西漢夫人恨獨居 紫皇令嫁許尙書 雲衫玉帶歸朝晚 笑駕青龍上碧虛 (#17)

青童孀宿一千年 天水仙郎結好緣 空樂夜鳴簷外月 北宮神女降簾前 (#37)

19) 최혜진, 『허난설헌, 욕망의 시학』, 『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315면.



표출되고 실현된다. 선계는 인간적 가치관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초월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선의식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애초에 선녀였기 때문에 선계를 더욱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 앞에 타자화된 허난설현은 꿈꾸기를 포기한다. 적극적으로 결연을 성취하고 결연에 동참했던 것과는 달리 수동적으로 결연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

粧鏡孤鸞怨上元	거울 속의 외로운 난새 상원 부인 원망하고
雲車春暮下天門	구름수레 타고 저문 봄에 천문을 내려오네
封郎大是無情者	벼슬 얻은 낭군 너무도 정이 없는 사람이라
翠袖歸來積淚痕	푸른 소매에 눈물 자욱 흥건하여 돌아왔네 (#36)

허난설현은 자신을 거울 속의 외로운 난새에 비유하고 있다. 거울이 현실의 상징임을 감안할 때 이 표현은 ‘현실에 갇힌’ 자의식을 반영한다. 현실에 갇힌 허난설현에게 현실을 초월한 자유로운 비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스스로 거울 밖으로 나오려는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무력한 타자가 된 허난설현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뿐이다. 무정한 낭군과 중매한 상원부인을 원망하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도모하지 못한 채 소매 가득 눈물만 흘리는 것이다.

이처럼 선계에서 유선의 주체였던 허난설현이 현실 앞에서 타자화됨에 따라 선계와 현실계의 모호했던 경계는 분명해지고 선계의 꿈은 현실의 우위 앞에 힘을 잃는다.

瓊海漫漫浸碧空	바다는 드넓어 푸른 하늘에 잠기고
玉妃無語倚東風	선녀는 말없이 동풍에 의지하네
蓬萊夢覺三千里	봉래산 삼천리에서 꿈을 깨고 나니
滿袖啼痕一抹紅	소매 가득 울음 흔적 한 자락이 붉네 (#28)

『유선사』 제28수는 覺夢의 단계가 문면에 드러나 있다. 이는 깰 수밖에 없는 꿈의 한계에 대한 수용이자 현실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선계를 통한 낭만적 상상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마주한 현실은 초라하고 왜소하게 마련이다. 결

국 상상의 날개는 완전히 꺾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상상의 빈자리는 이제 눈물로 채워질 것이다.

허난설현은 중세적 자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유선을 통한 자유롭고 낭만적인 상상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낸다. 선계 지향이 『유선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낭만적 꿈꾸기 역시 반복적으로 좌절을 답습한다. 그 과정에서 허난설현의 심리적·정서적 상처는 더욱 깊어가고 타자성도 강해진다.

### 3. 정감어의 분석적 고찰-하강적 이미지를 통한 정서의 내적 침잠-

그렇다면 허난설현이 『유선사』 통해 선계 지향 의식을 형상화한 이면에는 어떤 의식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앞에서 추출한 시어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유선사』 87수에 등장하는 정감어의 의미 지향을 종합해 보면 모두 하강적 이미지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빈도수가 가장 높으면서도 작가의 정서를 함의한 어휘는 ‘露濕/濕露’이다. 허난설현이 꿈속에서 노니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선계는 항상 이슬에 젖어 있는 상태이다. 유선 행위는 주로 밤 혹은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다. 자유로운 판타지, 즉 초월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덧없음을 상징하는 이슬[露]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진다. 따라서 이슬에 ‘젖은[濕]’ 상태로 형상화되는 허난설현의 꿈은 현실로 ‘돌아와야만[歸]’ 하는 자의식의 발로이다. 선계에서 현실로의 복귀는 결국 신선이었던 자신의 판타지와 이별[別]을 뜻한다. 무릉도원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벗어나면 다시 찾기 어려운 곳이 선계이다. 서왕모의 청조, 상원의 난새 등과 같이 선계의 초대가 없이는 방문할 길이 없다. 허난설현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무정한 [無情] 선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無消息], 차갑고 쓸쓸하게[寒]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허난설현은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한다. 정감의 심연에 차갑게 가라앉아 스스로를 유폐[鎖]시키다가 결국 ‘절

대 고독'에 이른다.

이러한 심상 전개 흐름은 시어 통계에 나타난 빈도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배적 심상 — 이슬에 젖다[濕·沾·濃·染·浸]

심상의 흐름 — 현실로 돌아오다[歸/去/廻]



(선계를) 이별하다[別]



차갑고 쓸쓸한 신세로 지내다[寒·冷]



스스로를 가두다[閉]



절대 고독에 침잠하다[孤/獨]

허난설현의 한시에 나타난 심상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도식화되어왔다. 그러나 「유선사」 시어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상승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升·起·飛·擧]보다는 하강의 이미지[降·低]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강의 이미지는 허난설현 스스로 절대 고독의 상태로 침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찍이 허난설현이 그랬다고 전해지는 「양간비금도」<sup>20)</sup>는 자신의 형태를 표현한 有形詩로서 자아가 추구하는 의식의 면모를 보여준다. 무리를 지어 나는 새들을 한껏 목을 젖히고 바라보는 그림 속 아이는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고 이상향을 지향하는 허난설현 자신의 자화상이다. 앞에서 살펴본바, 詩識으로 잘 알려진 「몽유광상산시」 서문을 통해서도 허난설현의 내밀한 꿈꾸기를 읽을 수 있다. 꿈의 형상은 현실에 억압된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상처받고 왜소해진 자아의식을 확장하고 소생시킨다.<sup>21)</sup>

20) 허난설현이 유년기에 그랬다고 전해지는 「仰看飛禽圖」(22.2×12.0cm)에는 지팡이를 든 부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과 어린 소녀가 손을 잡고 하늘을 나는 한 쌍의 새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소녀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90도 각도로 젖혀져 있고, 손은 새를 향해 힘껏 뻗어 있다. 왼편 전경의 큰 나무와 자그마한 모옥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앞쪽의 배경인 산봉우리와 강물은 단순화시켜 다소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와 사실적인 표현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림이다.

허난설현은 당대의 석학인 부친과 오빠에게 문학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 특히 열두 살 연상인 하곡은 허난설현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私家讀書할 때 허난설현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하곡은 여동생의 천부적 재능을 아끼는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림을 그려보라며 붓을 보내주기도 했고,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는 새로 장정한 두보시집을 보내주면서 시 읽기를 권장했다. 붓과 시집은 허난설현의 예술성과 문학성을 인정하고 계발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선사』 87수의 시어 통계와 의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허난설현은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시적 구현으로 자신의 암울하고 외로운 삶을 승화하고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아와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정서적 여유를 갖기는 쉽지 않다. 『유선사』 제66수에서 “위량은 젊지만 게으름이 심하여 얇은 비단에 오악도조차 그리지 못하네[韋郎年少心慵甚 不寫輕綃五岳圖]”라고 노래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라버니 하곡의 기대 및 자신이 꿈꾸었던 삶과 멀어질수록 선계 지향은 심화된다. 『유선사』에는 허난설현이 선계에 침잠하여 현실을 애써 망각하려 했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정서적 침잠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煙鎖瑤空鶴未歸	안개 자욱한 하늘, 학은 돌아오지 않고
桂花陰裏閉珠扉	계수나무 꽃그늘 속, 사립문은 닫혀 있네
溪頭盡日神靈雨	시냇가에 종일 신령한 비 내려서
滿地香雲濕不飛	땅에 가득 향기구름 젖어서 날지 못하네 (#10)

날아간 학은 돌아오지 않고, 사립문은 굳게 닫혀 있다. 자욱한 안개와 비에 젖은 구름은 현실적 질곡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鎖-空-未歸-閉-盡日-濕-不飛’로 이어지는 시상의 전개는 스스로를 현실에 유폐하고 절망의 심연으로 가리앉는 허난설현의 우울한 초상을 반영하고 있다.

허난설현은 자신의 정서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현실의 곁핍을 극복하고자 했다. 제도적 굴레와 억압이 강해질수록 자아정체성 회복과 현

21) 정민, 앞의 책, 106면.

실 극복 욕망도 커졌다. 이러한 동기는 「유선사」라는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선계 지향으로 표출된다. 이성의 자각과 반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침잠을 통해 초월을 시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선사」속에서 허난설헌은 이상향 속의 여신이 되어 여유로운 풍류를 구가한다. 어릴 적 「양간비금도」로 소망했던 비상의 욕망을 선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선사가 허난설헌의 판타지 세계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바, 시어의 빈도 및 의미 분석을 고려하건대 현실적 좌절과 한계를 극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선계를 통해 현실의 초월을 꿈꾸었으나 압담한 현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허탈감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감 자체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부작용의 작가적 표출 방식을 불우의식이라 할 수 있다. 「유선사」의 중심주제가 사람과 환경인 까닭은 사람과 환경이 불우의 대상이자 원인이기 때문이다. 허난설헌의 유선이 언제나 미완성의 하강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4. 맺는 말

허난설헌은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창작을 통한 자기표현 행위를 금기로 여겼던 봉건적 유교 질서 하에서 뚜렷한 작가의식의 소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또한, 허난설헌의 작품은 지식과 교양 교육의 수혜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여건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결과라는 점에서 작가적 천재성을 보여준다.

허난설헌은 선계 지향을 통해 욕망을 표출하고 현실의 곁핍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선사」속에서 허난설헌은 이상향 속의 여신이 되어 여유로운 풍류를 구가하고 자유롭게 비상한다. 그러나 결국 압담한 현실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허탈감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감 자체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본고에서는 이 부작용의 작가적 표출 방식을 ‘불우의식’이라 일컫고, 먼저 선계와 인간계라는 두 층위에서 허난설헌의 선계 지향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난설헌에게 선계야말로 정체성의 산실이며, 현실은 잠깐의 귀양처에 지나지 않는다. 본연의 자리, 선계에서 허난설헌은 동료 선인들과 더불어 여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인다.

둘째, 『유선사』에는 선계와 현실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다. 현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따금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다.

셋째, 그 어떤 낭만적 꿈일지라도 깨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유선 문학이 추구하는 세속 현실의 초월은 본질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우위 앞에 선계의 꿈이 반복적으로 좌절됨에 따라 심리적·정서적 충격은 커진다.

허난설헌의 연작 한시 『유선사』 87수에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 양상 및 이에 대한 반응의 스펙트럼이 다채롭게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사』 문면에 드러난 遊仙 행위 못지않게 詠懷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작품에 내포된 정서와 의식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 『유선사』 시어의 통계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사상 전개 과정에서 정서적 맥락을 찾아보았다. 시어의 선정은 작품의 정감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감어가 포함된 시구 전체를 제시하여 정감어의 의미화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허난설헌이 꿈속에서 노니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선계는 항상 이슬에 젖어 있는 상태이다. 유선 행위는 주로 밤 혹은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다. 자유로운 판타지, 즉 초월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덧없음을 상징하는 ‘이슬[露]’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진다. 따라서 이슬에 ‘젖은[濕]’ 상태로 형상화되는 허난설헌의 꿈은 현실로 ‘돌아와야만[歸]’ 하는 자의식의 발로이다. 선계에서 현실로의 복귀는 결국 건너엿던 자신의 판타지와 ‘이별[別]’해야 하는 한계를 뜻한다.

무릉도원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벗어나면 다시 찾기 어려운 곳이 선계이다. 복숭아꽃잎을 따라가듯이 서왕모의 청조, 상원의 난새 같은 선계의 초대가 없이는 방문할 길이 없다. 선계를 희구하는 허난설헌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무정한[無情]’ 선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無消息]’, ‘차갑고 쓸쓸하게[寒]’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허난설헌은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한다. 정감의 심연에 차갑게 가라앉아 스스로를 ‘유펜 [鎖]’시키다가 결국 ‘절대 고독’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심상 전개 흐름은 시어 통계에 나타난 빈도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요컨대 허난설헌 「유선사」 87수의 시세계를 일언이폐지하면 ‘좌절된 유토 피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향한 꿈꾸기가 현실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과 타개 방법으로 모색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난설헌의 꿈의 여정은 언제나 참담한 현실로의 복귀로 마무리된다.

## 〈참고문헌〉

- 허난설현, 『난설현시집』(서울대학교 규장각본).  
김명희, 『허부인 난설현, 시 새로 읽기』, 이회, 2002.  
김명희, 『허난설현의 시문학』, 국학자료원, 2014.  
김성남, 『허난설현』, 동문선, 2003.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  
던』, 돌베개, 2004.  
이경혜, 『스물일곱 송이 붉은 연꽃』, 알마, 2007.  
이숙희, 『허난설현 시론』, 새문사, 1998.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장정룡, 『허난설현 평전』, 새문사, 2007.  
정 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허미자, 『허난설현 연구』, 성신여대출판부, 1984.  
허미자, 『한국여성시문전집』, 국학자료원, 2002.  
황재균, 『한국고전여류시연구』, 집문당, 1985.  
황재균 외, 『한국문학과 여성』, 박이정, 1997.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집, 한국여성  
문학학회, 1999, 15-42면.  
신희삼, 「시어의 언어적 분석의 효용성에 관하여」, 『한국어의미학』 32집,  
한국의어미학회, 2010, 95-121면.  
유임순, 「허난설현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4.  
최혜진, 「허난설현, 욕망의 시학」, 『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300-323면.  
한성금, 「허난설현 한시의 미학」,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 【국문초록】

허난설현은 봉건적 유교 질서 하에서 뚜렷한 작가의식을 보여준 여류작가로 평가된다. 허난설현의 한시에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 양상 및 이에 대한 반응의 스펙트럼이 잘 나타나 있다. 본 논문은 연작 한시 「遊仙詞」 87수를 대상으로 불우의식의 형상화 과정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不遇’란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만남의 대상이 무엇 혹은 누구인가에 따라 의식의 발현태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허난설현의 「유선사」는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의 굴레를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 선계를 꿈꾸고 형상화한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는다. 허난설현의 선계는 현실의 탈출구로서 자유로운 욕망의 날개짓을 펼치는 공간만도 아니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망각하기 위한 피안처만도 아니다. 문면에 드러난 다양한 遊仙 행위 못지않게 詠懷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허난설현의 「유선사」 분석도 그 안에 내포된 정서와 의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선사」 시어의 통계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사상 전개 과정에서 정서적 맥락을 찾아보았다. 시어의 선정은 작품의 정감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감어가 포함된 시구 전체를 제시하여 정감어의 의미화 기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허난설현은 자신의 정서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현실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했다. 제도적 굴레와 억압이 강해질수록 자아정체성 회복과 현실 극복 욕망도 커졌다. 이러한 동기는 「유선사」라는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선계 지향으로 표출된다. 이성의 자각과 반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침잠을 통해 초월을 시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선사」 속에서 허난설현은 이상향 속의 여신이 되어 여유로운 풍류를 구가한다. 어릴 적 「양간비금도」로 소망했던 비상의 욕망을 선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선사」가 허난설현의 판타지 세계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어의 빈도 및 의미 분석을 고려하건대 현실적 좌절과 한계를 극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선계를 통해 현실의 초월을 꿈꾸었으나 암담한 현실

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허탈감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감 자체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부작용의 작가적 표출 방식을 불우의식이라 할 수 있다. 『유선사』의 중심주제가 사람과 환경인 까닭은 사람과 환경이 불우의 대상이자 원인이기 때문이다. 허난설헌의 유선이 언제나 미완성의 하강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제어 : 유선사, 선계, 정감어, 문체, 시어 통계, 분석, 언어적 접근, 판타지, 불우의식

【Abstracts】

## The study of Unfortunate consciousness that appears in Yuseonsa by Heonanseolheon

— On the basis of poetic-word statistics and analysis —

Son, Aeng-hwa

Heonanseolheon is evaluated as a woman writer who showed distinct writer consciousness under the order of Confucianism. In her Chinese poems, conflicts between self and world and the various responses about them is represented well.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process to realize unfortunate consciousness. Yuseonsa is an object of this study. 'Unfortunate' means 'didn't meet'. Therefore unfortunate consciousness has a difference according to what or who the object of meeting is.

Yuseonsa isn't text that dreams of Seongye in order to look away and escape from dark reality. Seongye in Yuseonsa is the escapeway from reality. It is not only space to desire and escapeway in order to forget pain and trouble that are hard for her to control. The meaning of emotion is as important as Yuseon. Therefore it is focused on involved emotion and writer consciousness when Yuseonsa is analyzed.

Emotional context in Yuseonsa is found through statistics and analysis of poetic-word. The selection of poetic-word set on the basis of the emotional contribution. This paper intends to find mechanism of creating meaning by suggesting a line which includes syllables in a poem.

Heonanseolheon tried to overcome the lack of reality by representing emotion and desire as they are. The stronger the desire to overcome reality got, the stronger the oppression of society became.

This motive is expressed by aiming for Seongye. It is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transcend through emotional sink. Heonanseolheon who became a goddess in an ideal land enjoyed the placidity in Yuseonsa. It's certain that Yuseon is a fantasy world of Heonanseolheon.

However, It's hard to assert that Heonanseolheon overcame the limit of reality through Yuseon. She dreamed of transcending reality, but she failed. She had to returned to reality. As a result, her sinking sensation got worse and side effect occurred. This side effect is the very unfortunate consciousness. The main theme in Yuseonsa is human and environment, which is the object and cause of unfortune. Therefore Yuseon of Heonanseolheon always ends up incompleion.

Key words : Yuseonsa, Seongye, Emotional language, stylistic, poetic-word statistics, analysis, linguistic approaches, fantasy, Unfortunate consciousness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7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8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